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5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5월 7일 (음력 4월 3일) 수요일

미 쇠고기 식별 장비 한대도 없다

광주·전남, 원산지 표시 단속 하나마나 … 처벌도 솜방망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두고 6일 정부가 쇠고기 등 육류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을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단속 인원이나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6·7·10면〉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한우로 속여 판매돼도 뾰족한 단속방법이 없는데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 부과 등 솜방망이에 그쳐 체계적인 단속시스템 도입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육류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범위를 100㎡(30평) 이상의 영업장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병원·군대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인원이나 매뉴얼,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단속이 사실상 겉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자치단체에 등록된 음식점이 1만5천여개, 전남도는 2만7천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2명, 광주식품의약안전청과 광주시 담당 공무원 13명, 전남도 5명, 일선 시·군 22명 뿐이다. 따라서 42명이 4만2천여 곳을 단속해야 하는 만큼 1인당 1천여개 업소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산이나 호주산 등으로 둔갑 판매돼도 이를 적발해낼 장비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현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장비가 3대 있으나,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기에 수입산과 한우를 식별할 뿐 미국산 쇠고기를 구별하지 못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민동석 정책관 회견 당정협의 달라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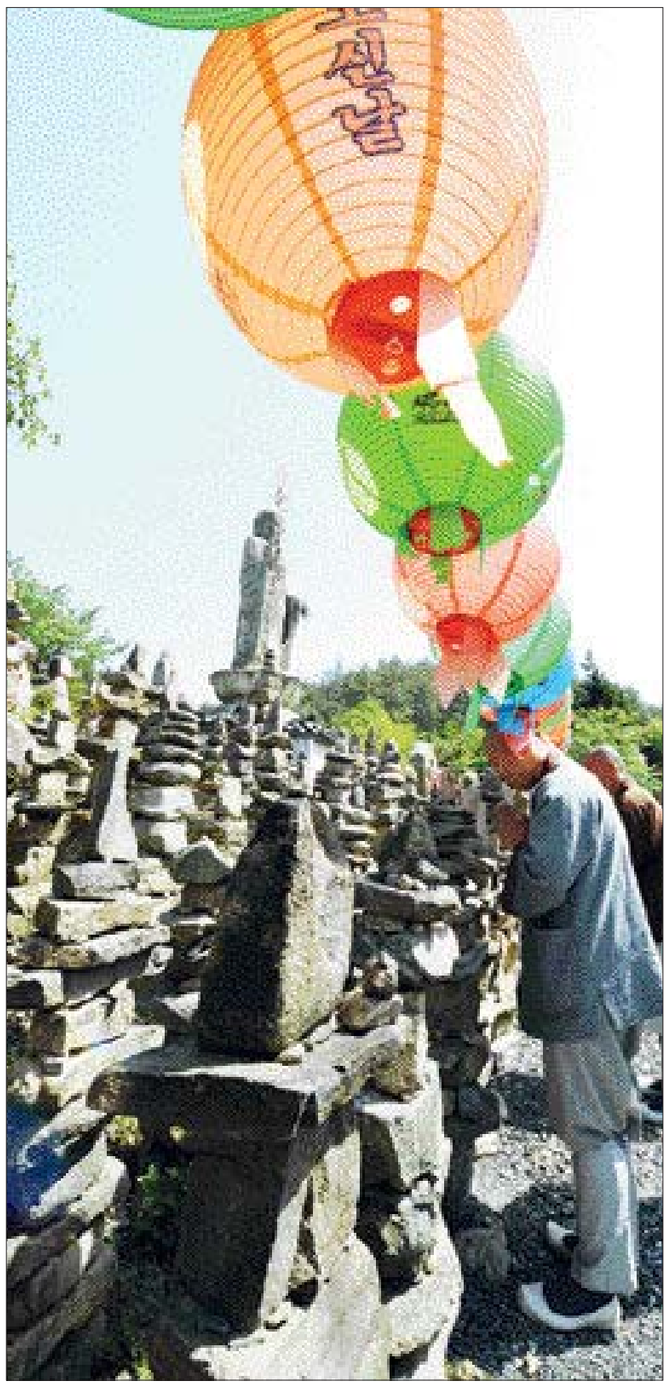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정부합동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며 당정협의 내용을 뒤집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생산정책관은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은 종료되었고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등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돌탑과 연등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6일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옴천사에 1천800여개의 돌탑과 연등이 어우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주지 석정암 스님은 "여수 엑스포유치를 기원하며 지난 2001년부터 쌓기 시작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총 3천개의 돌탑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U대회 개최지 결정 임박 ㉮ 외교 역량 집중을

외교부·국정원·코트라 '풀가동'

지난 1~5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현지 실사에서 광주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로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남은 과제를 두 차례로 나눠 진단한다. 〈관련기사 2·5면〉

러시아 카잔과 2차 투표에 대비 부동표 흡수 전방위 외교 펼쳐야

2013 하계U대회 유치 신청도시 중 현재까지 실사를 마친 곳은 광주와 스페인 비고. 강력한 경쟁상대인 러시아 카잔은 오는 15~18일 실사를 받는다. 3개 도시는 실사 종료와 동시에 개최지 결정 투표가 실시되는 31일까지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2013년 개최지는 오는 31일(한국시각 6월 1일 새벽) 27개 집행위원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총회에서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대륙별 집행위원 분포는 유럽 13명, 아시아 7명, 아프리카 4명, 아메리카 3명 등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치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FISU 사무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10여개국을 돌며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지를 요청해왔다. 해외 유치활동은 광주시와 유치위, 외교부, 체육계 인사들이 번갈아 각 국을 돌며 표심을 4중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이뤄져왔다.

현재까지 판세는 광주와 카잔의 2파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행위원들의 성향과 지지여부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보니 1차에서 광주와 카잔이 동수로 점쳐져 2차 투표로 갈 것 같다"면서 "2차 투표에서 비고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스페인 비고도 실사에서 호평을 받는 등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집행위원 가운데 러시아와 같은 유럽 국가 소속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3명에 달하는데다 세번째 도전인 카잔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과 오일 달러를 무기로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행위원 출신 국가별로 치밀한 '맞춤형' 득표전략을 마련, 국가 차원의 전방위 외교전으로 부동표를 끌어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정원,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친서 발송은 물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단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수산단 또 정전 사고

여천NCC 3공장 가동 중단 … 큰 피해 예상

지난 3일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한 여수산단에서 불과 3일만인 6일 또 다시 정전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6일 오전 11시36분께 여천NCC 3공장에 변압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전사고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여천NCC 3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3공장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대림산업의 가동도 중단됐다.

여천NCC 관계자는 "지난 3일 발생한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5일부터 재가동된 3공장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가동이 다시 중단됐다"며 "현재로서는 변압기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변압기는 여천NCC가 지난 1988년 3공장을 준공할 때 설치했으며, 이 변압기는 내년에 교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천NCC 측은 지난 3일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며, 변압기를 공급한 효성중공업측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여천NCC는 지난 3일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해 현재 1공장과 2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여천NCC 관계자는 "1, 2공장은 7, 8일께 정상 가동될 예정이며, 3공장은 변압기 이상 원인을 조사한 후에야 재가동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32분께 여수산단에 정전사고가 발생, 여천NCC와 한화석유화학 등 10개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여수=이종행·박양규기자 golee@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주)조이트래블
(062) 234-3222
기업호텔 조이트래블 특가!!
정사 / 장가계 4일 398,000
329,000
399,000~
349,000~
629,000
429,000~
399,000
1,990,000
1. 이태리일주 8일 1,590,000
2. 서유럽 5개국 11일 2,190,000
1. 대만 / 아름 / 화련 4일 619,000
2. 대만 / 아름 / 화련 4일 659,000
바리오 / 홍콩 / 심천(주해온천) 4일 760,000
미국비자
중국비자
▶비자상담 직통전화 : 062-233-5900